응답하라 1960!

해방촌 아카이브　배영욱

이상하다! 해방촌의 옛 자료를 모아 보겠다며 호기롭게 기획서를 쓸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다. 1940년대 해방촌이 남산의 일부인 숲에서 점차 마을이 되는 과정과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주는 정보 이상의 이야기를 모을 수 있을 듯 했다. 그러나 자칭 '인터넷 검색의 귀재'라 불리는 필자의 레이더망에 1940~1950년대의 해방촌의 자료는 거의 걸리지 않았다. '그래, 전쟁통에 어수선한 시절이니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길 겨를이 없었나 보다' 생각하며, 주저 없이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한다.

그러고 마주한 시대 1960. 서울이 상전벽해와 같은 개발과 변화를 시작하기 직전, 서울의 변두리 해방촌이 길이 닦이고 수도가 들어오며 도시 속 동네의 모양으로 변하던 시기이다. 또 용산 청과물시장과 남대문시장, 미군부대, 국방부 등에 기대어 해방촌만의 독자적인 동네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필자가 태어나기도 전의 까마득한 1960년대를 신문기사와 개인의 기념사진, 영화, 동네 아저씨들의 기억 속 이야기를 조각조각 맞추어 조명해 본다.

남산에 남산타워가 없던 시절, 해방교회만 우뚝 솟았네!

해방촌이란 동네는 참 묘하다. 옛날에도 주목 받을 일이 없는, 주류에서 벗어난 서민들이 사는 변두리였지만, 신통하게도 이 동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논문,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자료들을 통해 해방촌의 지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 동네를 무대로 한 흑백영화들과 당시 한국에 주재하던 미군들이 찍은 사진 속에서 1960년대 해방촌의 모습을 온전히 찾아 볼 수 있었다.

박 서방(1960, 강대진), 오발탄(1961, 유현목), 혈맥(1963, 김수용) 등 흑백영화 속에서 1960년대 해방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영화 '박 서방'은 남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다 해방촌에서 카메라가 멈추면서 영화가 시작된다(사진 1 참조). 그 장면 속 남산은 필자가 아는 남산이 아니었다. 해방촌하면 떠오르는 남산타워가 없고 남산 팔각정만 스치듯 지나간다. 남산타워 없는 남산! 너무도 낯선 장면이지만 그래도 이 장면이 해방촌을 찍은 것으로 믿게 만든 것은 남산 끝자락에 우뚝 솟은 '해방교회'의 위용이 지금과 변함없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검색에 따르면 남산타워는 훨씬 이후인 1975년에 완공된다. 1960년도의 영화에도 그 모습이 보이는 해방교회는 1947년에 해방촌에 자리 잡았고 오늘날 석조건물의 모습을 1955년에 이미 갖추고 있었다. 한때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서 이주한 실향민들이 해방촌에 자리를 잡으면서 건립한 해방교회는 당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향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사진 1. 1960년대 해방촌의 모습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1960년대 영화 속 해방촌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그냥 시골마을 같은 모습이다. 아직 행정의 손이 닿지 않던 변두리였지만, 남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냇물이 수돗물을 대신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지게를 지고 흙길을 올라가는 박 서방(사진 2 참조)의 모습은 가장 일상적인 장면이었다.

집 지을 만한 자재 하나 변변치 않던 시절, 마침 미군부대에서 내다버린 방수 코팅되어 있던 두꺼운 박스들은 지붕 역할을 하기에 적합했고, 기름 바른 종이로 벽을 세워 판잣집이라도 지을 수 있었던 미군부대 옆 해방촌은 삼팔따라지들에게 산자락 한 켠을 내어주었다. 이들에게도 남산 계곡에서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낭만이 있었고, 아들이 미군부대에 취업하는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던, 힘들고 억척스런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던 시절이자 장소였다.

사진 2. 물지게를 지고 흙길을 올라가는 모습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사격장, 군인아파트(1964) 그리고 대림아파트

해방촌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사격장이었던 공터를 차지한 것. 그러다 미군정에 내쫓기고 그들이 옮겨간 건 그 근처 용산동 2가 일대.

-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권기봉 저) 중에서

옛 지도에서는 숲이었던 해방촌을 찾는 것보다 사격장을 찾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위 책에 언급된 것처럼 1927년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제작된 용산시가도(사진 3 참조)에도 지금의 용산 미군부대는 일본주둔군 병영지로 표시되어 있고, 사격장도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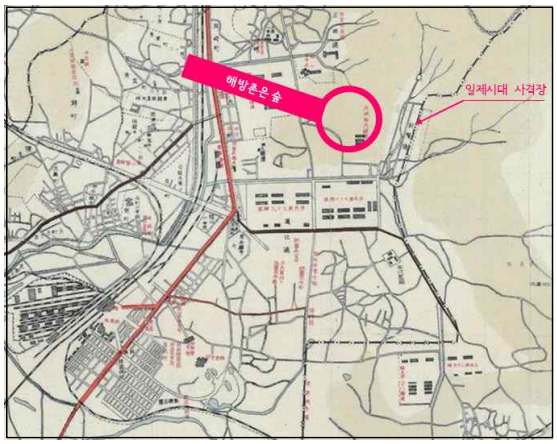

사진 3. 1927년에 제작된 용산시가도

1960년도에 미군인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거주한 Bill Smothers 씨의 옛 사진(사진 4 참조)을 보면 지금은 없어진 외인 주거단지 지붕 너머로 빈 사격장과 멀리 용산고등학교(1946)와

보성여중고(1950)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격장 자리에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아파트가 지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1964년에 완공됐으니 그야말로 당시 최신식 주거형태가 해방촌 바로 옆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군인아파트는 25년 후인 1989년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이전 공사의 대가로 대토(代土)되어, 지금의 주공아파트와 대림아파트로 지어질 때까지 지속된다(연합뉴스, 1992.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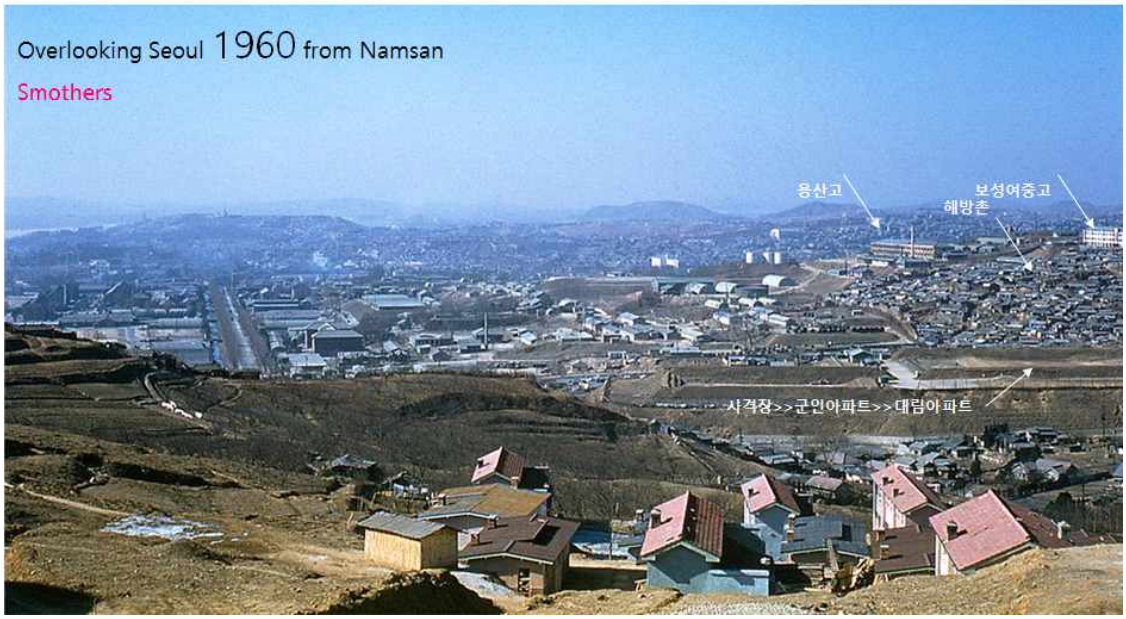

사진 4. 1960년 미군인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거주한 Bill Smothers 씨의 옛 사진 속 해방촌의 모습

군인아파트 시절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1960년대 최신식의 주거형태를 상상해 본다. 도시건축이 전공인 필자의 직업병이 도지는 순간이다. 아직 남산 3호 터널이 생기지 않아서 용암국민학교는 해방촌의 일부로 역할을 하던 때이고,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이라 도로에도, 아파트단지에도 차가 없이 휑하다. 잘 관리된 아파트정원과 테니스코트에서 수고했을 군인아파트 관리병과 테니스병의 노고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 당시 남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제한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층 높이로밖에 짓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다. 동네 할아버지의 기억에 따르면, 남산 때문이 아니라 미군부대 때문에 주변 건물을 높이 짓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가 서울의 대표적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남산의 경관은 어쩌면 미군부대 때문에 지켜진 경관일지도 모르겠다.

인터넷의 바다 속에서 발견되는 당시 군인아파트 앞마당에서 찍은 군인가족의 어린 시절 사진 속 아파트 입면은 오늘날 거푸집을 짜서 짓는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에서도 구현하기 힘든, 공들여 쌓은 벽돌 입면 디자인으로 건축 전공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진과 영화만으로 밝혀지지 않는 해방촌의 1960년대,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했다. 언젠가 <남산골해방촌> 잡지를 배포했을 때 인디고 가게 아저씨(오상석, 1957년생)께서 “내가 토박이야!

나를 인터뷰해요”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이번 기회에 조심스럽게 아저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해방촌에 수도가 들어오다. 1963

영화 ‘박 서방’에서는 박 서방이 물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올라간다. 인디고 아저씨의 기억 속에도 지금의 종점약국 즈음에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만든 공동수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 물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올라가는 이들이 많았단다. 또 그 언저리에 흐르던 개천을 따라 빨래터가 곳곳에 있었고 옛날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빨래터에서 엄마들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단다.

그러던 1963년의 어느 날, 해방촌에 드디어 수도가 들어왔다.

“…1학년 즈음에, 그때 전기랑 수도가 들어왔는데 마당에 수도꼭지가 딱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했었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스팔트 공사를 했어요. 바로 길가에 사니깐 몸이 떨려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엄청난 차가 와서 땅을 막 깎더라고. 그게 불도저지. 지금 형태의 불도저는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불도저. 그걸로 며칠에 걸쳐서 자갈 뿌리고 콜타르 치고 아줌마들이 와서 한참 동안 공사해서 아스팔트길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흙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땅 파서 놀고 그랬죠…”

사진 5.

사진 6.

당시 콜터 장군 동상이 있었어!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종점이 아니었어요. 버스가 안 다녔었지.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후암동에서 내려서 여기 후암동 고개를 넘어왔으니까…. 그러다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버스라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타면 머리가 닿을락 말락 했어.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버스였는데, 그게 여기서(종점약국 자리에서) 출발해서 가회동 종점까지 갔었지. 그때는 3호 터널도 없었고, 반포대교 쪽으로 길이 나지도 않았지. 지금 미군부대가 반포대로 가는 길로 잘려 있잖아요. 그 길이 3호 터널 뚫리면서 생긴 도로죠. 그때 당시에… 반포대교 이전에 잠수교가 있었고, 뚫을 때 콜터 장군 동상이 있었는데 그게 공사하면서 없어지고, 옛날에는 요렇게 나가서 이태원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갔다가 고개를 빙 돌아 삼각지 쪽으로 다시 둘러갔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그렇게 다녔어요. 버스도 그렇게 다니고….”

아저씨의 유년시절 기억의 마지막은 1969년 콜터 장군의 동상이 사라지고, 오늘날 해방촌의 경계가 되는 남산 2호 터널이 뚫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해방촌을 빗겨 생긴 터널로 인해 해방촌은 점차 확장되는 강북 도심개발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바로 터널을 관통하여 다다르는 강남으로 개발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만다.

1960년대가 해방촌이 동네의 모습을 갖춘 시기

1960년대 해방촌은 필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이다. 그래서 이 시절의 해방촌을 배경으로 하는 글과 기사가 묘사하는 대로 아주 가난한 빈민들이 살던 곳이라고 유추할 따름이다. 그러나 영화 속 해방촌의 모습은 너무 모자라지도, 그렇다고 풍요롭지도 않은 그 시절의 보통사람들이 살던 서울의 보통 변두리동네로 보인다. 그들에게 1960년대는 가진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 곳을 만들고 억척같이 개척해서 그들의 촌락을 서서히 서울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오히려 연고 없는 자신들에겐 생업의 기회가 더 많은 장소였다고, 그리고 그 시절 해방촌 사람들은 배를 곯거나 하진 않았다고 회상하신다.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

1960년대의 이야기를 발굴하면서 동네 어르신들께 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LA갈비의 창시자인 해방촌 출신의 성공신화, 흥남부두에서 군함 타고 내려와 정착하신 후 처음으로 3층 양옥집을 지으셨던 부모님 이야기, 신흥시장에 제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던 시절 흙바닥의 장터에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새끼줄을 쳐서 구획했던 만큼 소유하게 했다던 미국의 서부개척시대 같은 이야기를 담은 신흥시장 형성 이야기, 남산관광도로 너머 남산에 살던 사람들이 단체로 이주해야 했던 이야기들…. 관련 사진자료와 근거를 찾기 못해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깨알 같은 에피소드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혹시 장롱 깊숙한 곳에 둔 사진첩 안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함께 해방촌의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어릴 때 쓴 일기장 속에 윗집 살던 선교사와의 에피소드가 적혀 있진 않으신지요? 해방촌의 옛날 이야기를 담는 이 활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억을 기다립니다.

응답하라 1960! 응답해주세요. 해방촌 주민분들!